

팀 타율 1위 방망이, 롯데에 스윙패 실욕한다

TIGERS 타이거즈 전망대

KIA 타이거즈가 '10번 타자'들과 1위 지킴기에 나선다. KIA는 NC 다이노스와 KT 위즈를 상대한 지난 주 4승 2패의 성적을 거뒀다. 2위 LG 트윈스와는 1.5경기 차다. LG가 지난주 5승 1패를 수확하면서 바짝 추격해왔다. KIA는 타선의 힘으로 4승을 만들었다. 2일 경기에서 KT 에이스 쿠에바스의 기세에 막혀 3-11 대패를 기록했지만 KIA는 지난주 6경기에서 0.316의 가장 높은 팀타율을 기록했다. 김선빈이 지난주 9개 안타를 추가하는 등 '5할' 타율을 기록했고, 소크라테스도 2개 홈런 포함 11안타로 0.478의 주간 타율을 찍었다. 박찬호도 27타수 11안타, 0.407의 타율을 작성했다.

5할 김선빈·4할 소크라테스 등 안방서 롯데와 헤리티지 시리즈 임기영 선발·불펜 '전천후' 투입

29년만에 6경기 연속 매진 챔필 최다 매진 신기록 진행형 7일부터 수도권 원정 9연전

KIA는 타선의 힘으로 1주일 만에 전개된 NC와의 주중 원정 3연전에서 28점을 뽑아내면서 다시 한번 스윙승을 장식했다. 올 시즌 NC와의 상대전적은 8승 1패가 됐다. 하지만 홈에서 치러진 주말 3연전 분위기는 달랐다.

5월 31일과 지난 1일에도 KT를 상대로 두 경기 연속 두 자릿수 안타는 만들었지만 타선의 집중력이 떨어졌다. 2일에는 쿠에바스에게 7회까지 단 2개의 안타를 뽑아내는 데 그치면서 고전했다. 여기에 마운드도 동시에 흔들리면서 KT와는 1승 2패, 루정시리즈를 남겼다. 2패가 기록된 두 경기에서 각각 로하스와 문상철에게 만루포를 허용하면서 승기를 내줬다. 부상 악몽도 계속됐다. 임기영과 함께 마운드로 돌아왔던 이의리가 1경기 만에 다시 재활군이 돼 긴 휴식에 들어갔다. 이의리는 팔꿈치 인대 부분 손상과 뱀조각 문제로 재활과 수술을 놓고 고심하다, 결국 수술을 선택했다. 앞서 재활 선수 명단에 등재됐던 크로우도 미국에서 재검진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인대 재건술을 받으면서 시즌을 일찍 마무리했다. 선발진의 부상 여파는 불펜에도 영향을 미쳤다. 시즌 초반부터 불펜에서 '감초' 역할을 했던 좌완

곽도규가 지난 5월 27일 엔트리에서 말소, 재출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필승조로 굳게 뒷문을 지켰던 또 다른 좌완 최지민도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KIA의 마운드 고민이 더해졌다. 예상치 못했던 부상 변수가 연이어 발생한 마운드에서 임기영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KIA는 주중 롯데와의 홈 3연전에 이어 주말 두산과 원정 3연전을 갖는다. 임기영이 이의리의 등판이 준비됐던 4일 롯데전에 선발로 출격해 애런 윌커슨과 마운드 대결을 벌인다. 임기영은 크로우의 대체 외국인 선수인 캡 알드레드가 정상적으로 로테이션에 진입할 때까지 선발 역할을 맡는다. 선발로 자리를 굳힌 활동에 이어 알드레드까지 선발진이 재구성되면 임기영은 불펜에서 '전천후 활약'을 할 예정이다. 임기영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KIA는 '10번 타

자'들의 힘을 더해 1위 수성에 나서게 된다. KIA는 지난 주말 KT와의 홈 3연전을 만원 관중으로 채웠다. 무등경기장을 안방으로 쓰던 1995년 이후 29년 만에 6경기 연속 매진을 기록했고, 챔피언스필드 최다 매진 기록을 '15경기'로 늘렸다. 롯데와의 3연전 기간 현충일 휴일이 있는 만큼 KIA는 새로운 매진 기록 달성을 기다리고 있다. 팬들의 눈길을 끄는 이벤트도 마련됐다. KIA와 롯데는 이번 대결에서 '헤리티지 시리즈 호영 대체전' 이벤트를 펼친다. 두 팀 선수들은 올드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빌 예정이다. 주말 만원 관중 앞에서 루정 시리즈를 기록한 KIA가 앞선 롯데전 스윙패까지 만회할 수 있는 활약을 펼치며 팬들을 웃게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KIA는 6일 홈경기가 끝난 뒤에는 수도권 원정 9연전 길에 오른다. 7일 두산전을 시작으로 11-13일 SSG전, 14-16일 KT와의 원정 맞대결이 펼쳐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또 잡았다! FC서울

K리그1 16라운드 2-1 승리 이견희 시즌 4호·베카 결승골 서울·인천 밀어내고 7위 올라

광주FC가 시즌 첫승 상대였던 FC서울을 또 울렸다. 광주가 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서울과의 K리그1 16라운드 경기에서 이견희와 베카의 골로 2-1승리를 거뒀다. 최근 3경기에서 1무 2패에 그쳤던 광주가 4경기 만에 기록한 승리다. 올 시즌 유일하게 무실점 승리를 거뒀던 서울을 상대로 한 연승이기도 하다. 광주는 3월 2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치러진 서울과의 2024시즌 개막전에서 가브리엘과 이희균의 골로 2-0 승리를 거뒀다. 이번에는 상대 안방에서 승리를 거둔 광주(6승 1무 9패·승점 19)는 서울(4승 5무 7패·승점 17)과 인천유나이티드(4승 7무 5패·승점 19)를 밀어내고 7위로 올라섰다. 인천(20골)과 승점이 같지만 광주(24골)가 다득점에서 앞섰다. 전반 22분 이견희가 시즌 4호골로 '0'의 균형을 깼다. 서울 진영에서 뒤로 흐른 공을 잡은 변준수의 슈팅이 빗맞으면서 골대 오른쪽에 있던 최경록에게 공격이 연결됐다. 최경록이 반대편으로 흘러온 공이 서울 골키퍼 백중범을 스쳐 이견희 앞으로 향했다. 이견희가 침착하게 원발로 공을 밀어 넣으면서 1-0을 만들었다. 하지만 광주가 전반전 종료를 앞두고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추가시간' 악몽이 되살아났다. 전반 추가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서울의 코너킥 상황이 연출됐고, 왼쪽에서 기성용이 띄운 공이 문전에 있던 권완규의 머리로 향했다. 이어 권완규의 헤더가 나갔고, 공은 그대로 광주 골대로 빨려갔다. 앞서 전반 38분 프리킥 상황에서 권완규가 기성용의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었다. 이번에는 부심의 빛이 올라가지 않았고 이 골은 경기를 1-1 원점으로 돌리는 동점골이 됐다. 후반 15분 광주 이정호 감독이 김한길과 이견희를 빼고 가브리엘과 베카를 동시에 투입했다. 두 사람은 그라운드에서 호흡을 맞춘 지 16분 만에 천금 같은 역전골을 합작했다. 후반 31분 가브리엘이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베카가 문전에서 원발로 공을 터치하면서 골망을 흔들었다. 베카의 시즌 첫골, 가브리엘의 시즌 3호 도움이다. 이후 팽팽한 기싸움이 전개됐고 8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다.



광주FC의 베카가 지난 2일 FC서울과의 원정경기에서 1-1로 맞선 후반 31분 역전골을 넣은 뒤 골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서울 김기동 감독이 후반 46분 4경기 연속 선발 출장했던 린가드를 빼고 지난 5월 31일 준프로 계약을 맺은 2006년생 강주혁을 투입했다. 그러나 광주가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서울의 공세를 잘 막았고, 프로 데뷔전에 나선 강주혁은 팀의 1-2 패배를 지켜봤다. 광주는 이날 승리로 좋은 분위기에서 A매치 휴식기를 맞게 됐다. 재정비 시간을 보내는 광주는 15일 오후 7시 김천상무와 홈에서 맞대결을 갖는다. 한편 K리그2의 전남드래곤즈는 김포FC와의 원정경기에서 역전승을 거두며, 선두싸움에 불을 붙였다. 전남은 지난 1일 김포 스포츠퉀에서 열린 K리그2 1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한

김종민의 활약으로 2-1 승리를 거뒀다. 앞선 안양전 3-2 역전승에 이은 연승으로 전남은 최근 6경기에서 5승 1무를 기록하고 있다. 전남은 전반 31분 김포 박경록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후반 13분 김종민이 임찬울의 크로스를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김종민의 시즌 9호골. 후반 29분에는 코너킥 찬스에서 흐른 공을 조지훈이 오른발 슈트로 연결하면서 역전극을 연출했다. 김종민은 조지훈의 골을 도우면서 시즌 3번째 도움도 장식했다. 전남(8승 3무 4패·승점 27)은 1위 안양(9승 3무 2패·승점 30)에 승점 3점 뒤진 2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하지만 이고은은 지난 2023년 '이적 해프닝'의 주인공이 됐다. 페퍼스가 FA로 박정아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이고은을 보호선수 명단에서 제외했고, 도로공사는 이고은을 지명했다. 이에 페퍼스는 이고은을 재영입하기 위해 도로공사에 2023-2024 신인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을 내주는 '촌극'을 벌였다. 우여곡절 끝에 페퍼스는 이번 트레이드로 다시 이고은을 내보내게 됐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페퍼스, 결국 이고은 내보냈다

흥국생명 이원정과 트레이드... 2025-2026 1R 신인지명권도 얻어

결국 이고은이 페퍼스를 떠났다. 프로여자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3일 흥국생명하고 이고은을 내주고 이원정을 영입하는 '세터'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페퍼스는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 이고은과 2025-2026시즌 2라운드 신인지명권을 흥국생명에 내줬다. 대신 이원정과 2025-2026시즌 1라운드 신인지명권을 얻게 됐다. 2013-2014시즌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3순위 지명을 받아 도로공사에 입단한 이고은은 지난 2021-2022시즌을 마치고 2번째 FA 자격을 얻어 페퍼스로 이적했다.

다. 대신 이원정과 2025-2026시즌 1라운드 신인지명권을 얻게 됐다. 2013-2014시즌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3순위 지명을 받아 도로공사에 입단한 이고은은 지난 2021-2022시즌을 마치고 2번째 FA 자격을 얻어 페퍼스로 이적했다.

위기의 팀을 구하라

"한화와 함께 꼭 우승하고 싶다"

김경문, 한화 감독 선임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새 사령탑으로 김경문(65·사진) 전 한국야구대표팀 감독을 선임했다. 한화는 지난 2일 김 전 감독과 3년 총 20억원(계약금 5억원, 연봉 15억원)에 계약했다고 밝혔다. 최원호 전 감독이 지난달 23일 성적 부진을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히고 구단이 26일 이를 받아들인 지 딱 일주일만이다. 김경문 감독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야구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9전 전승' 금메달 신화를 썼다. KBO리그 사령탑으로서 두산 베어스에서 960경기, NC 다이노스에서 740경기를 지휘하며 14시즌 동안 896승 30무 774패를 거뒀다. 김경문 신임감독은 3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올 시즌 목표로 '승률 5할'을 내걸었다. 하위권을 맴도는 한화가 당장 한국시리즈(KS) 우승을 노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포스트시즌(PS) 경쟁력부터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 것이다. 지난 3년간 PS 마차를 탔던 5위 팀의 정규 시즌 승률은 0.511(2021년 키움), 0.490



(2022년 KIA), 0.521(2023년 두산)이었다. 김 감독은 3일 "5할을 맞추는 것이 우선이다. 포스트시즌에 초점을 맞춘 뒤 성적이 올라오면 그다음 생각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우승에 대한 갈망이 작은 것은 결코 아니다. 한국시리즈 준우승만 4차례인 김 감독은 "2등이라는 것은 저 자신에게는 아픔이었다. 한화와 함께 꼭 우승하고 싶다"면서 "이기는 야구를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야구 철학인 '뚝심'의 야구, '뛰는 야구'는 한화에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수 기용에 있어선 "(시즌 잔여) 경기가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젊은 선수보다 나이가 있는 선수를 기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변화를 예고했다. /연합뉴스

경질 4년만에 명예회복 베틀다

'강등권 추락' 대전 황선홍 감독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하며 '추락한 황새' 황선홍(사진) 전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 감독이 강등권으로 추락한 프로축구 K리그 1 대전하나시리즈 사령탑에 올랐다. 대전 구단은 황 감독을 제15대 사령탑으로 선임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황 감독은 2020년 9월 성적 부진으로 대전 사령탑에서 물러나고서 4년 만에 다시 대전으로 복귀하게 됐다. 구단은 "새로운 변화와 반전이 필요한 시점에 국내외 리그와 국가대표팀에서 선수, 지도자로 풍부한 경력을 가진 황 감독이 위기를 극복할 책임자로 판단했다"고 선임 이유를 설명했다. 선수 시절 한국을 대표하는 간판 스트라이커였던 황 감독은 2008년 부산에서 지도자로 첫발을 내디뎠다. 2011년부터는 포항을 이끌며 2013년에는 정규리그와 대한축구협회컵(FA컵) 2관왕의 위업을 달성했다. 5년 동안 포항에 리그 99승, 3개의 트로피(정규리그 1회, FA컵 2회)를 선사하며 K리그를 대표하는 명장으로 떠올랐다. 2016년에는 서울 감독으로 다시 한번 K리그 우승을 지휘했고, 2013년에 이어 그해에도 K리그 감독상 수상자가 됐다. 그러나 2017년부터 성공보다는 실패의 기억이 많다. 서울에서 성적이 계속 하락하더니 선수들과



갈등까지 외부에 노출됐고, 결국 2018년 4월 성적 부진에 책임을 지고 자진해서 사퇴했다. 2020년에는 대전의 기업 구단 전환 이후 첫 사령탑을 맡았으나 성적 부진으로 시즌을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황 감독은 2021년에는 U-23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돼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전승 우승으로 한국의 대회 3연패를 견인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에서 신태용 감독이 이끈 인도네시아에 충격패해 4강 진출에 실패했고, 2024 파리 올림픽 본선행 티켓도 따내지 못했다. 한국 축구가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한 건 1984년 로스앤젤레스(LA) 대회 이후 40년 만이다. 팬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긴 대형 실패를 경험하고서 불과 5주 만에 황 감독은 재기의 기회를 잡았다. /연합뉴스